



부전대동계 문서 (浮田大洞契 文書)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의 부전대동계는 조선전기에 설립된 것으로 400여 년간 그 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충남의 대표적 동계이다. 부전동은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내산리·도천리·신용리의 4개리, 15개 자연마을에 해당한다.

부전대동계는 긴 역사와 함께 동계책, 고문서, 동물(洞物) 등 많은 자료들을 남기고 있다. 현존하는 부전대동계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1663년(癸卯)의 동계좌목(洞契座目)인데, 서문을 보면 임진왜란 이전부터 동계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7세기(1663년)에 중수된 후 130여 년간 손질 없이 그대로 운영되다가, 1792년과 1839년에 각각 중수되었고, 상계와 하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마을에서는 매년 동계회의를 열어 산신제와 동계 재산의 결산은 물론 마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전대동계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자료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부전대동계는 조선시대 동계와 마을생활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1663년에 작성된 부전대동계 『좌목(座目)』을 비롯한 성책고문서, 고문서 등 관련 유물 총 47점이 현재 문화재심의 중에 있다.